



“박선원은 北 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20여 년 전 내사 밝혀져
노무현 정권 저지로 수사 못 해
‘尹 내란죄’ 선동질 핵심적 역할
北 지령 받고 광란의 칼춤 의혹

‘12.3 국가 반란 사태’의 배후 중 하나로 지목돼 고발당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더 높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이 20여 년 전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권이 개입하면서 국정원 수사가 틀어졌고 동시에 술한 의혹들이 묻히면서 살아남은 박선원이 중앙에서 앞으로까지 확대돼 이번 국가 반란을 배후 조종한다는 우려가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박선원부터 체포·압수·수색하고 북한 지령 이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반(反)국가 세력의 선봉에 있으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씌운 데 이어 대통령의 탄핵을 추동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안보에 사망 선고를 내린 주범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을 북한식 용어인 내란 수괴로 단정 짓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 사건으로 호도했고 국정조사를 또는 사실관계 검증 없이 즉시 체포·수사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히 박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시 가이드라인(수사 지침)을 검찰에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행방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데다 김어준에게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출동했다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발언하도록 제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와 김병주 씨는 군사시설 및 군사동원 체계 등 극비 사항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블랙요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국가 안보 수호 의지가 없는 반국가 세력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美文화원 접기로 실형... “USB 들고 튀어라” 靑 보고 누설 의혹

박선원의 과거 행적상 북한 지령을 받고 ‘광란의 칼춤’을 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씨는 전남 나주 영산포 상고를 나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아시아학 석사를 거쳐 영국 워릭대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재학 시 ‘삼민투’ 위원장으로 1985년 4월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삼민투’는 1985년 조직된 반미(反美) 학생운동 조직으로 ‘민족 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3민투위라고도 부름)’를 말한다.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조명’ 전단을 통해 “일제 좌익공산세력이 독립운동의 주체” “조선공산당은 민족해방투쟁의 정통 승계자” “제주 4.3, 여순 반란은 민중항쟁” “미국 축출이 통일의 첫걸음” 등을 주장했다.

박선원이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 및 국가 안보전략 비서관으로 일하던 중 2006년 10월 일심회 사건이 터졌다.

일심회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은 재미동포 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를 주축으로 최기영(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정훈(고려대 삼민투 위원장)·이진강·손정목 등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과 민주노동당 내부 당직자 정보 등을 누설하다 2006년 10월 적발된 간첩단 사건이다.

검찰은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재미사업가 장민호,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전국삼민투위원장인 하인회가 이정훈과 장민호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면에 계속

이여진 편집위원 ljy@skypedaily.com



한파에 흥제천 인공폭포 ‘공공’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9일 서울 서대문구 흥제천 인공폭포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서울 아침 영하 12도를 기록한 이번 한파는 토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종원 기자

현대차 24.3조 역대급 국내 투자

위기 정면 돌파·성장동력 확보
전동화·SDV 경쟁력 강화 올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현대차그룹은 역대 최대 국내 투자액이었던 지난해 20조4000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24조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3조9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5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맞서는 관점과 자세와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변화와 혁신 및 위기 극복 DN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극복해 왔으며 위기 이후 더 강해졌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미래 투자의 종합적인 방향과 성장 의지 등을 투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주요 그룹사의 밸류 제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협력사들의 사업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투자는 중장

기 투자 방향성에 따라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신기술 선점·전동화 및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R&D) 투자에 11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경상 투자에 12조 원을 투입하며 전략 투자 8000억 원을 집행한다. R&D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전동화·SDV·수소 제품 및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끊임없는 체질 개선·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pedaily.com

민주 이상식 ‘경찰 내통’ 일파만파...尹체포 짜고 치나

SNS에 “메신저 역할 하느라
전화기에 붙었다” 스스로 밝혀

“경찰이 민주당 지휘받고 있나”
與 “심각한국헌문란용서못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 내통’ 의혹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여당은

경찰이 민주당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이라면 심각한 국헌 문란이라며 범법원과 민주당 ‘내통’ 의혹도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메신저 운운하면서 경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만약 경찰이 민주당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

헌 문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3시57분께 자신의 SNS에 “체포 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붙어 있습니다”라고 썼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야당과 내통해 상황을 조율하고 의논한다니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메신저 역할을 했다” 부분을 지웠다.

이 의원은 “5·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을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들 연락도 안 된다 해서 내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해명했다. 그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갖기로 했던 기자회견은 보류했다.

이 의원의 7일 SNS 글에는 “주말 경 체포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늘 저녁쯤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포결이 진행

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수정됐다.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주말이라고 못 박았다가 약 4분 만에 고친 것이었다. SNS 글이 올랐을 때는 법원의 영장 재발부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권 위원장은 “(이 의원이) 체포 영장 발부 시점 및 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민주당이) 경찰은 물론 법원과도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또 다른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면서 기동대 1000명 동원 및 헬기감각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 글을 올렸다. 이상은 민주당 의원은 공수 처장에게 ‘총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려고 다그쳤다”며 “이들 주장대로 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준기 기자 jhoh@skypedaily.com

본지 경력·수습·주재기자 모집 오늘 마감

굿네이버스로
Good Neighbors-ro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면?

굿네이버스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로
향합니다.**